

율리유곡 내신 문제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陶淵明 주근 後에 또 淵明이 나뒀 말이
밤ㅁ을 네 일흠이 마초와 ㅁ틀시고
도라와 ㉠ 守拙田園이야 괴오 내오 다르라

功名도 니젓노라 富貴도 니젓노라
世上 번우한 일 다 주어 니젓노라
내 몸을 내ㅁ자 니즈니 늬이 아니 니즈라

뒷집의 술ㅁ을 꾸니 거즌 보리 말 못 츠다
즈는 것 마고 찌허 쥐비저 괴아 내니
여러 날 주렷든 입이니 ㅁ나 ㅁ나 어이리

江山 閑雅흔 風景 다 주어 맛다 이셔
내 혼자 님자여니 ㅁ라셔 ㅁ톨소니
늬이야 숨썩지 너긴들 ㅁ화 볼 줄 이시라

덜가마 조히 싣고 바회 아래 심물 기러
ㅁ죽 들게 뿌고 저리지이 ㅁ어내니
世上에 이 두 마시아 늬이 알가 ㅎ노라

어와 저 白鷗야 ㅁ슴 슈고 ㅎ느슨다
굴습흐로 바자니며 고기 엇기 ㅎ느괴야
날 ㅁ치 ㅁㅁ음 업시 ㅁ만 들면 엇더리

茅簷 기나긴 히에 히을 일이 아조 업서
蒲團에 ㅁ죔 드러 夕陽에 지자 ㅁ니
門 ㅁ긔 ㅁ ㅎㅎ ㅎ며 낙시 가자 ㅎ느니
㉡ 三公이 貴타 ㅎ들 이 江山과 ㅁ골소나
㉢ 扁舟에 들을 싣고 낙대를 ㅎ터질 제
㉣ 이 몸이 이 淸興 가지고 萬戶侯 ㅁ들 부르라

秋江 불근 ㉤에 一葉舟 혼자 저어
낙대를 ㅁ쳐 드니 자는 白鷗 다 놀란다
어디서 一聲漁笛은 조차 興을 ㅁ느니

헛글고 싣근 文書 다 주어 후리치고
匹馬 秋風에 채를 쳐 도라오니
아프리 ㅁ인 새 노히다 이대도록 ㅁ원ㅎ라

대막대 너를 보니 有信 ㅎ고 반갑괴야
나니 아히적의 너를 ㅁ고 든니더이
이제란 窓 뒤헤 ㅁ다가 날 뒤세고 든녀라

世上 사름들이 다 ㅁ러 어리더라
죽을 줄 알면서 놀 줄란 모로더라
우리는 그런 줄 알모로 長日醉로 노노라

사름이 주근 後에 다시 사 니 보왓는다
왓노라 ㅎ 니 업고 도라와닐 보 니 업다
우리는 그런 줄 알모로 사라신 제 노노라

黃河水 ㅁ단 말가 聖人이 나셔도다
草野 群賢이 다 니러나뒀 말가
어즈버 江山風月을 ㅁ을 주고 갈소니

세버들 柯枝 ㅁ거 낙근 고기 ㅁ여 들고
酒家를 츠즈려 斷橋로 건너가니
원 골에 杏花 저 ㅁ히니 갈 길 몰라 ㅎ노라

東風이 건듯 부러 積雪을 다 노기니
四面 靑山이 네 얼굴 나노매라
귀ㅁㅁ히 ㅎ무근 서리는 ㅁ을 줄을 모른다

崔行首 ㅁ달힘 ㅎ새 趙同甲 ㅁ달힘 ㅎ새
들ㅁ ㅁㅁ 오려 點心 날 시기소
每日에 이렇성 ㅁ면 ㅁ슴 시름 이시라

01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고독한 심경을 심화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세속적 가치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감각의 전이 기법을 사용하여 계절의 변화를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를 통해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0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작가가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인 김제에 은거하며 지은 연시조이다. 작가는 도연명의 삶을 동경하며 전원에서의 소박한 생활을 구체적인 사물과 행위를 통해 형상화했다. 특히 세속적 가치인 '공명'과 '부귀'를 부정하고, 자연을 '임자' 없는 절대적 공간으로 인식하며 그 안에서 누리는 '흥(興)'을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자연을 감상하는 차원을 넘어, 육체적 노동과 소박한 음식을 통해 얻는 실천적 즐거움을 포함한다.

- ① '淵明이 나뒀 말이'는 동경하는 인물의 삶을 자신과 일치시키려는 화자의 의식이 투영된 것이겠군.
- ② '거촌 보리'로 빚은 술과 '뜻죽'은 소박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실천적 즐거움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내 혼자 님자여니'는 자연을 소유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타인과의 배타적 관계를 설정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군.
- ④ '헛글고 싯근 文書'를 후리치는 행위는 세속적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단호한 태도를 시각화한 것이겠군.
- ⑤ '萬戶侯'를 부러워하지 않는 태도는 세속적 권력보다 자연에서 느끼는 정서적 만족감이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는군.

03

① '守拙田園'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때, 화자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자신의 본성을 지키며 분수에 맞는 삶을 영위하려 한다.
- ② 세속적인 영달을 좇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려 한다.
- ③ 기교나 꾸밈이 없는 소박한 생활 양식을 고수하고자 한다.
- ④ 과거의 잘못을 보완하기 위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 ⑤ 외부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려 한다.

04

윗글에 등장하는 소재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술썰'과 '거촌 보리'는 화자의 경제적 빈궁함을 보여주지만 정서적 만족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 ② '白鷗'는 화자가 경계해야 할 대상인 동시에, 화자의 무심(無心)함을 부각하는 비교 대상이다.
- ③ '대막대'는 화자의 유년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삶을 연결하며 변치 않는 신의를 상징한다.
- ④ '文書'는 화자를 속박하던 세속적 가치를 상징하며, 이를 버림으로써 얻는 해방감을 강조한다.
- ⑤ '杳화'는 화자가 가야 할 길을 물리적으로 차단하여 자연 속에서의 고립을 심화하는 소재이다.

05

[A]에 나타난 화자의 말하기 방식과 태도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속적 권위와 자연의 가치를 대조하여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타인의 평가를 수용하는 형식을 빌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우회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 ③ 자연물에 대한 경외감을 바탕으로 인간의 유한함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 ④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소박함을 비교하며 상실감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 ⑤ 자연의 변화무쌍함을 관찰하며 인생의 무상함을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06

윗글의 화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인지하면서도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이다.
- ② 세속의 일들은 번우(煩憂)한 것이며, 이를 잊는 것이 내면의 평화를 얻는 길이다.
- ③ 관직 생활은 '매인 새'와 같은 구속의 상태이며, 자연으로 돌아오는 것은 해방의 과정이다.
- ④ 성인이 나타나고 군현들이 일어나는 정치적 상황은 화자가 복귀해야 할 당위성을 부여한다.
- ⑤ 죽음 이후의 삶은 기약할 수 없으므로, 살아있는 동안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즐겨야 한다.

07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이웃집에서 빌린 술썰로 빚은 술이 맛이 없어 실망하고 있다.
- ② 화자는 밤마을의 이름이 도연명의 고향과 같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 ③ 화자는 낚시를 하러 가자는 아이의 외침을 듣고 귀찮아하며 거절하고 있다.
- ④ 화자는 자신의 귀밑머리에 내린 서리를 보며 세월의 흐름을 한탄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최 행수와 조 동갑에게 점심 대접을 받으며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08

윗글의 화자가 '백구(白鷗)'에게 건네는 말에 담긴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먹이를 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백구의 생명력을 예찬하고 있다.
- ② 자신의 한가로운 처지를 백구와 대비하여 우울감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 ③ 세속적 욕심을 버리고 자연과 하나 되어 안식할 것을 백구에게 권유하고 있다.
- ④ 백구의 자유로운 비행을 통해 자신의 구속된 현실을 환기하며 슬퍼하고 있다.
- 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백구의 행위를 비판하며 올바른 삶의 자세를 훈계하고 있다.

09

윗글의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절의 변화와 그에 따른 자연의 경관을 묘사하며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일상적 경험(음식, 수면, 낚시)을 나열하여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세속적 가치를 상징하는 시어와 자연적 가치를 상징하는 시어를 대조하고 있다.
- ④ 화자의 시선이 내면의 성찰에서 시작하여 점차 외부 세계의 모순 비판으로 확장되고 있다.
- ⑤ 역사적 인물(도연명)을 인용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전범(典範)을 제시하고 있다.

10

윗글의 표현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자연의 생동감과 화자의 흥취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② 반어적 어법을 통해 현실에 대한 화자의 냉소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을 통해 공간의 입체감을 살리고 있다.
- ④ 명령형 어미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독자의 행동 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 ⑤ 도치법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1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작가의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여 학문적 성취를 이루려는 구도적 삶
- ② 세속과 단절된 공간에서 자아를 성찰하며 도덕적 결백을 증명하는 삶
- ③ 소박한 일상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자연과 합일되는 안분지족의 삶
- ④ 전원 생활의 고충을 극복하고 이상 사회 건설을 위한 지혜를 얻는 삶
- ⑤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며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인내하는 삶

12

〈보기〉는 윗글의 화자가 쓴 다른 시구이다. 두 글을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산중에 책력이 없으니 계절이 가는 줄을 모르겠구나.
눈 녹아 꽃이 피니 봄인 줄 알겠고, 잎 지고 찬바람 부니 가을인 줄 알겠노라.
아이를 불러 물으니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모른다 하니, 나 또한 잊었노라.

- ① 윗글의 '東風'과 〈보기〉의 '눈 녹아 꽃이 피니'는 모두 계절의 순환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는군.
- ② 윗글의 '文書'를 잊은 태도는 〈보기〉에서 '어느 때인지'를 잊은 무심함과 맥락이 닿아 있겠군.
- ③ 윗글의 '長日醉'는 〈보기〉의 '책력이 없음'과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시간 관념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겠군.
- ④ 윗글의 화자가 자연의 '님자'를 자처하는 것은 〈보기〉에서 계절의 변화를 주도하려는 의지와 상통하겠군.
- ⑤ 윗글과 〈보기〉 모두 자연의 섭리에 몸을 맡기고 세속적 가치로부터 초연해진 화자의 경지를 보여주는군.

13

윗글의 시어 중 성격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 ① 功名
- ② 富貴
- ③ 三公
- ④ 萬戶侯
- ⑤ 清興

14

윗글의 마지막 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적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영탄적 어조를 통해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한과 인생무상을 토로하고 있다.
- ③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연의 영원함과 인간의 유한함을 대비하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통해 전원 생활의 고단함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⑤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 화자의 내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15

윗글의 '대막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의 어린 시절 놀이 도구이자 현재의 동반자로 설정되어 있다.
- ② '有信(유신)하다'는 표현을 통해 인격적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 ③ 화자의 뒤를 따르는 행위를 통해 복종과 충성의 의미를 형상화한다.
- ④ 세속적 문서와 대비되어 화자의 탈속적 삶을 지탱하는 지팡이 역할을 한다.
- ⑤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관계를 보여주는 매개체이다.

01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 ②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출제의도]

작품 전반에 나타난 주요 표현 기법과 그 효과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② '밭골소냐', '부르랴' 등 설의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자연 속에서 누리는 '淸興'과 안분지족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지향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여덟째 수 등)

[오답 풀이]

- ① 백구(白鷗)나 대막대 등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화자의 고독을 심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친화력을 드러내는 장치이다.
 ③ 과거(아릿적)와 현재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친근감을 표현할 뿐 세속적 가치에 대한 미련과는 거리가 멀다.
 ④ 계절의 변화(동풍, 적설)가 나타나지만 감각의 전이(공감각적 심상)가 주된 특징으로 쓰여 시상을 전개하는 것은 아니다.
 ⑤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만, 화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 속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으며 내면적 갈등을 겪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③ '내 혼자 남아여니'는 자연을 소유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타인과의 배타적 관계를 설정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군.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의 세부 구절이 갖는 함축적 의미를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정답 풀이]

- ③ '내 혼자 남아여니'는 자연이 세속적인 소유권 다툼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는 역설적 표현이다. 이는 자연을 독점하려는 배타적 태도가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지만 오직 화자만이 그 진정한 가치를 알고 즐기고 있음을 자부하는 표현이다.

[오답 풀이]

- ① 도연명을 언급하며 자신과 같다고 하는 것은 그가 추구한 전원적 가치와의 합일을 의미한다.
 ② 보리술과 팔죽은 <보기>에서 언급한 '소박한 음식'과 '실천적 즐거움'의 구체적 사례에 해당한다.
 ④ '문서'는 관직 생활의 구속을 상징하며, 이를 버리는 것은 세속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⑤ '만호후'는 세속적 부귀의 상징으로, 이를 '청흥'과 대비시켜 자연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03 시어의 문맥적 의미

정답: ④ 과거의 잘못을 보완하기 위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출제의도]

핵심 시어인 '수졸전원'의 함축적 의미와 화자의 지향점을 연결하여 이해한다.

[정답 풀이]

- ④ '수졸전원'은 '졸렬함을 지키며 전원에 머문다'는 뜻으로, 자신의 본성을 지키며 세속에 물들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과거의 잘못을 보완하거나 현실적 해결책을 찾는 반성적·실용적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 ① '수졸(守拙)'은 자신의 본성을 지키는 분복의 삶을 의미한다.
 ② 전원에서의 삶은 세속적 가치인 공명과 부귀를 멀리하는 순응의 삶이다.
 ③ '졸(拙)'은 꾸밈없는 소박함을 상징하며 이는 화자의 생활 양식과 일치한다.
 ⑤ '남이 아니 잊으랴' 등의 표현에서 타인의 시선에 초연한 태도가 드러난다.

04 소재의 기능과 의미

정답: ⑤ '참화'는 화자가 가야 할 길을 물리적으로 차단하여 자연 속에서의 고립을 심화하는 소재이다.

[출제의도]

작품 속 주요 소재의 상징적 의미와 화자의 정서적 반응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⑤ '행화(샅꽃)'가 떨어져 쌓여 갈 길을 모른다는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흥취가 극에 달한 상태를 표현한 것이지, 물리적 차단이나 부정적 의미의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거른 보리'는 물질적 부족을 뜻하나 화자는 이를 '달거나 쓰거나' 개의치 않으며 즐긴다.
 ② 백구에게 '무심(욕심 없음)'을 권유하며 자신의 무심함을 강조하고 있다.
 ③ '대막대'를 '유신(有信)하다'고 표현하며 오랜 세월 함께한 동반자로 인식한다.
 ④ '문서'를 후리치고 돌아오는 행위는 '매인 새'가 놓인 듯한 시원함을 준다.

05 구절의 기능 및 태도 분석

정답: ① 세속적 권위와 자연의 가치를 대조하여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출제의도]

특정 구간의 수사법과 화자의 내면 의식을 통합적으로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① '삼공(三公)'이나 '만호후(萬戶侯)'와 같은 세속적 고위 관직을 '강산' 및 '청흥'과 대조하여, 자연에서의 삶이 훨씬 더 가치 있음을 설의적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지위를 거부하고 자연을 선택했음을 밝히고 있다.
 ③ 인간의 유한함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려는 의지는 이 대목의 핵심이 아니다.
 ④ 상실감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시원하다'는 표현 등에서 알 수 있듯 만족감이 지배적이다.
 ⑤ 인생무상의 정서보다는 현재 누리는 흥취에 대한 긍정이 주를 이룬다.

06 화자의 정서 및 태도

정답: ④ 성인이 나타나고 군현들이 일어나는 정치적 상황은 화자가 복귀해야 할 당위성을 부여한다.

[출제의도]

화자의 가치관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정밀하게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④ 열네째 수에서 '성인이 나섰다', '군현이 다 일어났다'고 언급하는 것은 태평성대를 찬양하는 상투적 표현일 뿐, 이를 근거로 화자가 다시 관직에 복귀하려 하거나 복귀의 당위성을 느끼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강산풍월을 누구를 주고 갈 것인가'라며 자연에 머물 뜻을 굳히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열두째 수에서 '죽을 줄 알면서 놀 줄 모르는' 세인들을 '어리다(어리석다)'고 비판한다.
 ② 둘째 수에서 '변우한 일'을 다 잊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③ 열째 수에서 관직 생활을 그만두고 돌아온 것을 '매인 새가 놓인 것'에 비유했다.
 ⑤ 열셋째 수에서 사후 세계의 불확실성을 들어 생전의 즐거움을 강조한다.

07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

정답: ② 화자는 밤마을의 이름이 도연명의 고향과 같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적인 사실 관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 풀이]

- ② 첫째 수에서 '밤마을 네 일흠이 마초와 7틀시고'를 통해 자신이 사는 마을의 이름이 도연명이 살던 곳과 같음을 인연으로 여기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다나 쓰나 어이리'라며 소박한 술맛 자체를 즐기고 있으며 실망하는 기색은 없다.

- ③ 일곱째 수에서 낚시 가자는 소리를 듣는 상황이 묘사될 뿐, 거절하거나 귀찮아하는 반응은 없다.
 ④ 열여섯째 수에서 '서리(백발)'가 녹을 줄 모른다고 탄식하는 듯하나, 이는 자연의 순환과 대비되는 인간의 노화를 관조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절망적 한탄은 아니다.
 ⑤ 마지막 수에서 점심을 시키라고 권유하며 함께 어울리는 즐거움을 노래할 뿐 미안함은 나타나지 않는다.

08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정답: ③ 세속적 욕심을 버리고 자연과 하나 되어 안식할 것을 백구에게 권유하고 있다.

[출제의도]

화자가 자연물을 대하는 방식과 그 속에 담긴 지향 가치를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정답 풀이]

- ③ 여섯째 수에서 고기를 얻으려 애쓰는 백구에게 '날 같이 군 마음(욕심) 없이 잠만 들면 어떻겠느냐'고 묻는 것은, 욕심 없는 '무심'의 상태가 진정한 자연 친화의 길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백구의 움직임이 '무슨 수고하느냐'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예찬과는 거리가 멀다.
 ② 백구를 가르치려는 태도는 보이나, 이를 사회적 우월감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약이다.
 ④ 화자는 이미 자연 속에서 해방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구속된 현실을 슬퍼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⑤ 백구의 행위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비판보다는 권유의 어조에 가깝다.

09 시상 전개 방식 분석

정답: ④ 화자의 시선이 내면의 성찰에서 시작하여 점차 외부 세계의 모순 비판으로 확장되고 있다.

[출제의도]

작품 전체의 구조와 시선의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④ 이 작품은 화자의 내면적 만족과 자연에서의 일상을 노래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외부 세계(세상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일부 나타나지만, 이를 사회적 모순 비판으로 확장하거나 시선의 주된 흐름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가을(秋江), 봄(東風) 등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들이 사용되었다.
 ② 팔죽을 쑤거나 낮잠을 자는 등 구체적 생활상이 잘 드러난다.
 ③ 공명/부귀와 강산/청흥의 대비가 명확하다.
 ⑤ 첫 수부터 도연명을 언급하며 자신의 삶을 그와 일치시키고 있다.

10 표현 기법의 정밀 분석

정답: ①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자연의 생동감과 화자의 흥취를 고조시키고 있다.

[출제의도]

작품에 사용된 감각적 이미지와 그 효과를 정밀하게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① 아홉째 수의 '一聲漁笛(어부의 피리 소리)'은 화자의 흥을 돋는 청각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원 생활의 풍류를 극대화한다.

[오답 풀이]

- ② 화자의 태도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며, 현실에 대한 냉소나 반어법은 주된 기법이 아니다.
 ③ 시선의 이동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것이 입체감을 살리기 위한 의도적인 '원경→근경'의 구조로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다.
 ④ 마지막 수에 '시키소' 등이 나타나지만 이는 권유에 가까우며, 독자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목적이 아니다.
 ⑤ 도치법이 일부 쓰일 수 있으나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다.

11 주제의식의 심층 이해

정답: ③ 소박한 일상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자연과 합일되는 안분지족의 삶

[출제의도]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와 가치관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③ 화자는 술과 팔죽, 낚시 등 소박한 일상을 즐기며 자연을 '임자'로 삼아 '청흥'을 느끼는 안분지족(安分知足)의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준다.

[오답 풀이]

- ① 학문적 성취나 구도적 자세보다는 정서적 즐거움과 풍류가 강조된다.
 ② 세속과 단절된 것은 맞으나,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는 투쟁적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④ 전원 생활을 고층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이상 사회 건설과 같은 거대 담론도 나타나지 않는다.
 ⑤ 과거의 영광(관직)을 오히려 '매인 새'로 규정하며 부정하고 있다.

12 타 작품과의 비교 감상

정답: ④ 윗글의 화자가 자연의 '님자'를 자처하는 것은 <보기>에서 계절의 변화를 주도하려는 의지와 상통하겠군.

[출제의도]

두 텍스트의 공통된 정서와 미묘한 태도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④ 윗글에서 '님자'가 되겠다는 것은 자연의 가치를 온전히 즐기겠다는 주관적 선언이지, 자연의 물리적 변화를 주도하거나 통제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보기> 또한 자연의 변화를 수

동적으로 관찰하고 순응할 뿐 이를 주도하려는 의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동풍과 눈 녹음은 봄을 알리는 시각적/촉각적 신호이다.
 ② 세속의 문서와 인위적 시간(때)을 잊는 것은 모두 탈속적 경지를 나타낸다.
 ③ 술에 취해 지내는 것과 달력이 없는 것은 모두 세속적 질서에서 해방된 삶을 뜻한다.
 ⑤ 두 작품 모두 자연 속에서의 무심(無心)과 안분지족을 핵심 가치로 공유한다.

13 시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 ⑤ 淸興

[출제의도]

작품 내에서 대립되는 두 가치 체계를 구분하고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⑤ '청흥(淸興)'은 자연 속에서 느끼는 맑은 흥취로, 화자가 긍정하고 지향하는 가치이다. 반면
 ① ,
 ② ,
 ③ ,
 ④ 는 모두 화자가 부정하거나 멀리하려는 세속적 부귀영화와 권력을 상징한다.

[오답 풀이]

- ① 공명은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것으로 세속적 가치이다.
 ② 부귀는 재산과 지위가 높은 것으로 세속적 가치이다.
 ③ 삼공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고위 관직이다.
 ④ 만호후는 넓은 영지를 가진 제후로 큰 부귀를 뜻한다.

14 서술 및 전개 방식

정답: ①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적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다.

[출제의도]

작품의 마무리 부분에 나타난 어조와 태도를 정확히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① '하세(하세)', '시키소(시키소)' 등 청유형과 명령형(권유) 어미를 사용하여 최 행수, 조 동갑 등 이웃과 함께 어울려 음식을 나누고 즐기는 소박하고 활기찬 전원 생활의 모습을 보여준다.

[오답 풀이]

- ② 회한이나 인생무상보다는 현재의 즐거움에 대한 긍정이 지배적이다.
 ③ 대구적 표현이 쓰였으나 이는 이웃과의 어울림을 나열하기 위함이지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위한 것이 아니다.
 ④ 전원 생활을 전혀 고단하게 여기지 않으며 반어법도 사용되지 않았다.
 ⑤ 최 행수와 조 동갑은 실제 인물(이웃)이지 의인화된 대상이 아니다.

15 소재의 함축적 의미

정답: ③ 화자의 뒤를 따르는 행위를 통해 복종과 충성의 의미를 형상화한다.

[출제의도]

특정 소재에 투영된 화자의 인식과 정서를 다각도로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③ '날 뒤세고 돈녀라(나를 뒤세우고 다녀라)'는 것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노년의 모습을 친근하게 표현한 것이지, 대막대가 화자에게 복종하거나 충성한다는 유교적 위계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아릿적의 너를 두고'와 '이제란 썩 뒤혜 섰다가'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한다.
② '유신하고 반갑괴야'에서 의인화와 인격적 신뢰가 드러난다.
④ 관직의 상징인 '문서'를 버린 화자가 자연 속에서 의지하는 실질적 도구이다.
⑤ 어린 시절부터 노년까지 함께한 존재로 시간적 연속성을 상징한다.